

# ‘불명예’ 탄소의 진짜 얼굴 보여준다

## 탄소라는 세계

폴 호컨 지음, 이한음 옮김

기상이변으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탄소(Carbon)는 우리가 알고 있는 원자 중 가장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진 원자일 듯하다. 전 지구적 문제로 다가온 기후위기의 원흉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탄소배출량을 줄이고 대기중으로 배출되는 탄소를 제거·흡수해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중립’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 250여개국이 정책으로 채택하고 있다.

탄소의 불명예를 복원시켜주는 책이 나왔다. 세계적인 환경운동가이자 사회적기업가로 60여년간 환경운동의 최전선에서 일해온 폴 호컨은 신간 ‘탄소라는 세계’를 통해 탄소의 ‘진짜 얼굴’을 보여준다. 지금까지 출간된 대부분의 책이 탄소를 범죄자로 보는 데 반해 이 책은 탄소가 지구 생명의 근원임을 상기시킨다. 저자는 “길을 잘못 든 원소로, 문명을 자멸로 이끄는 주범으로 축소시켜온” 탄소를 복원시켜 “온갖 아름다움, 비밀, 복잡성을 지닌 생명 전체를 들여다보는 유리창”으로 삼아 이야기를 풀어간다.

폴 호컨은 전 세계 67개 경영대학 교수들이 ‘경영 및 환경 분야 최고의 대학 교재’로 선택한 ‘비즈니스 생태학’, 17부작 TV 시리즈로 만들어져 1억 명이 이상 시청한 ‘그로잉 비즈니스’의 저자다.

생명의 가장 기초적인 화학 원소로 지구의 3300만 가지 물질의 99퍼센트에 들어 있는 탄소의 영어 단어 ‘카본(Carbon)’은 ‘태우다’라는 뜻의 인도유럽어 ‘케르(kerh)’에서 나왔고 케르는 ‘석탄’을 뜻하는 라틴어 ‘카르보넴(carbonem)’이 됐다.

책은 생명의 변형과 죽음, 그리고 재생까지 아우르며 지구상에서 가장 다재다능한 원소로 꼽히는 탄소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준다. “탄소는 생명의 모든 자취에 활



세계적인 환경운동가 폴 호컨의 ‘탄소라는 세계’는 기후위기의 주범으로 꼽히는 탄소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다. 사진은 지난달 7일 LA 북부 캐스태이크 지역에서 불길과 싸우고 있는 소방관들. /연합뉴스

기를 불어넣는 공학자이자 제작자, 분자 행위자”라 말하는 저자는 모든 생명체를 연결하는 탄소의 탁월함을 소개하며 “탄소가 살아있는 존재라면, 우리는 탄소의 사회적 지능, 모이고 어울리는 유연한 특성, 쉽게 친구를 만드는 능력에 찬사를 보낼” 것이라고 강조한다.

저자는 생태학자, 물리학자, 군학자, 생명윤리학자 등 다양한 전문가들의 최신 연구를 소개하고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환경공학을 아우르며 생명의 기원, 농업혁명, 질병치료, 신물질 개발, 나노기술까지 탄소가 이룩한 138억년의 대장정을 풀어낸다.

책은 오늘날 생명체들의 호르몬과 DNA, 손톱과 장기에 이르기까지 모두 탄소 기반 물질이라는 점을 이야기하며 모든 생명은 탄소라는 같은 뿌리를 둔 셈이라고 소개한다. 또 농업 생산량을 폭발적으로 끌어올린 탄소 비료와 의료, 항공, 우주, 전자공학 등에서 없어서 안 될 물질로 자리잡은 나노기술 역시 ‘풀러렌(fullerene)’이라는 탄소 분자에서 태동했음을 상기시키며 탄소가 인

류 변형까지 관장했다고 말한다.

기후위기 시대 저자가 주목한 것은 ‘탄소의 흐름’이다. 공기 중의 탄소는 식물과 바다로, 다시 토양으로 이동하며 지구 전체에 에너지를 전달한다. 하지만 수십억 년 동안 지구를 지탱하던 탄소의 흐름은 인간에 의해 끊기고 말았다. 기후위기에 대한 논의는 탄소의 흐름을 다시 이어붙이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한다고 말하는 저자는 ‘탄소의 춤’(생명에 내재된 끊임없는 재생)을 언급하며 기후 위기의 진정한 해답은 인간의 인위적인 개입이 아닌, 자연의 재생 능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책에서 돋보이는 것 중의 하나는 과학책에서는 좀처럼 만나기 어려운 예사롭지 않은 문체다. 추천사를 쓴 동물 행동학자 제인 구달 등이 ‘시적인 문체’라 표현한 문장들이 어우러져 다양한 주제를 한편의 서사시처럼 풀어냈다는 평을 받았다. <웅진지식하우스·1만9800원>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새로 나온 책

▲본격 한중일 세계사 20(급시니스트 지음)=2017년 시작된 20권 대장정의 역사만화가 드디어 완간을 맞는다. 아편전쟁부터 한일병합까지 19세기 동아시아의 격랑을 드립과 패러디로 버무려내며 15만 독자의 사랑을 받은 시리즈다. 서구 중심의 시각을 벗어나 한중일 근대사의 교차와 충돌을 입체적으로 보여주며, 유머러스하면서도 깊이 있는 해석으로 ‘역덕’과 ‘역알못’ 모두의 필독서로 자리매김했다. <위즈덤하우스·1만9800원>

▲내일의 옷(마진주 지음)=극단적 기후위기 속에서 패션과 지속 가능성의 공존을 묻는다. 환경·경제·사회·문화를 아우르며 디자인, 생산, 소비, 교육 등 다양한 사례를 통해 패션 산업의 모순과 가능성을 짚는다. 완벽한 해답 대신 작은 실천과 융합적 사고가 변화를 이끌 함의를 강조하며, 미래 패션의 길을 함께 모색하게 한다. <에코리브르·1만8500원>

▲디스펠(이마무라 마사히로 지음, 구수영 옮김)=미스터리 4관왕 작가가 초등학생들의 괴담 추적기로 돌아왔다. 오컬트 마니아 유스케, 논리파 사쓰키, 전학생 미나가 터널·댐·옛 종교시설을 탐사하며 1년 전 미제 사건의 진실에 다가선다. 괴담을 단순한 ‘느낌’이 아닌 논리적 검증의



대상으로 삼아 공포와 추리가 같은 속도로 달리는 독특한 긴장을 빚어낸다. <내친구서재·1만8000원>

▲진격하는 AI와 흔들리는 노동자(이재열 외 지음)=AI가 불려올 일자리의 미래를 다각도로 짚는다. 자동화로 위협받는 노동 현실과 함께, 인간과 AI의 협력 가능성, 창의성과 감성 노동의 가치, 규제와 거버넌스의 필요성을 균형 있게 제시한다. 막연한 공포를 넘어 AI 시대의 노동과 사회적 합의, 제도적 대안을 모색한다. <롤리코스터·1만8000원>

## 어린이·청소년 책



▲이불 두더지(오로시 지음)=“5분만 더...”라며 아침마다 이불 속으로 숨어드는 찬이. 찬이가 어느날 두더지로 변해버렸다. 외계인의 잔소리를 피해 달아나고, 구름 사이를 헤치며 별을 맞보는 등 유쾌한 모험이 이어진다. 아이의 끝없는 상상력과 엄마의 애타는 깨움이 맞부딪히는 풍경은 독자에게 웃음을 선사하면서도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게 만든다. <보랏빛소어린이·1만6800원>

▲출동! 고라니 택시(김도식 지음, 주노 그림)=산속 먹을거리가 사라져 마을로 내려온 고라니 고돌이가 택시 기사가 되어 모험을 펼친다. 어수룩하지만 지혜롭고 용감한 고돌이는 도로 위에서 어린

이를 지키는 히어로로 활약한다. 성실한 마음과 용기로 어려움을 극복하는 모습이 어린이 독자에게 웃음과 용기를 전한다. <이지북·1만5000원>

▲좋아요가 싫어요(이지음 지음, 장서영 그림)=사람이 되고 싶은 호랑이 어룡이가 유튜브 방송으로 ‘좋아요’ 100만 개 받기에 도전한다. 치킨 먹방부터 탈출 방송까지 고군분투하지만 쉽지 않다. 어룡이가 인정 욕망에 매달리며 자아를 잃어가는 모습은 현대 사회의 불안한 자존감을 풍자한다. SNS 시대에 진짜 ‘나’를 찾는 법을 묻는 재기발랄 동화. <꿈타·1만4000원>

## 일상 속 결정 어려울 때, 펼쳐 보세요

### 이런 고민, 이런 책

박균호 지음

일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수많은 문제와 고민에 직면한다. 물론 그것에 대한 답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도 대다수다.

그럴 때ற்க의 책이 의외의 답이 될 수도 있다. 인생의 해답을 찾을 수 없을 때 책을 통해 갈 길을 찾고 간명한 답을 얻는 이들도 있다.

흔히 책을 일컬어 삶을 비추는 거울, 지혜의 보고 등으로 표현된다. 어떤 이는 책을 ‘반려’의 의미로 말하기도 한다. 북 클럽니스트이자 교사인 박균호에게 책은 ‘반려’의 의미로 수렴되기도 한다.



그가 펴낸 ‘이런 고민, 이런 책’은 “나나 내 가족에게만 의미 있는 책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유용하고 의미가 있을 법한 서른일곱 권”을 담았다.

저자는 ‘부조금 액수가 고민될 때’는 기드 모파상은 ‘여자의 일생’을 읽으라고 조언한다. 책 속의 잔느는 신혼여행 중 남편이 일꾼들에게 얼마의 수고비를 줄지 고민하는 것에 대해 ‘고민될 때는 조금 더 여유 있게 주는 것이 낫다’고 말한다.

오늘날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도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이다. 저자는 부조를 5만원을 해야 할지, 10만원을 해야 할지 결정을 내리지 못할 때는 10만원을 하는 것이 나은 선택이라고 본다. 또한 부조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상황에서는 하는 편이 낫다고 얘기한다. 저자의 그러한 생각은 바로 ‘여자의 일생’이라는 책에서 얻은 결론이다.

자신만의 소신을 갖고 살고자 할 때는 살렛 브론테의

‘제인 에어’를 읽으라고 한다. 작품 속 제인 에어가 교사의 권위를 얻을 수 있었던 데는 자신의 기숙학교 시절의 경험 때문이었다. 학생 신분이었을 때 받았던 강압적인 교육 방식을 탈피하고 학생의 특성과 개성, 성향 등을 고려한 방식을 선택한 것이다.

소통과 공감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교육은 학생이 부모처럼 교사를 따르게 한다는 사실을 생생한 체험을 통해 얻을 수 있었다.

저자의 경험, 관점과 결부한 각각의 책들은 풍성한 이야기거리와 삶의 지혜를 준다. 내용 뿐 아니라 오래 전에 읽었던 책이 주는 물성 등은 시간이 지날수록 새록새록 추억을 안겨준다. 이밖에 저자는 ‘인생이 통속으로 물들 때’는 표도로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 ‘이성과 감성 사이에 고민이 될 때’는 헤르만 헤세의 ‘나르치스와 골드문트’를 읽으라고 말한다. <북 바이북·1만85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디케이 주식회사

공 기 의 새 로 운 정 의  
공 간 을 빛 내 는 선택

계절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건  
우리 집 공기의 깨끗함입니다.  
늘 깨끗한 집, 늘 건강한 숨.

모든 순간을 더 건강하게  
디케이 공기청정기·살균기

www.e-dk.co.kr

판매 및 A/S 문의 1544-1154

